

연구노트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 측정: 지수 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Measuring Social Relationships among the Korean Elderly:
Problems in the Construction of Index Using Multiple Indicators

이명진^{a)}, 손주희^{b)}

Myoung-Jin Lee · Ju Hee Son

이 논문은 노년세대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관계의 측정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노년세대 내에서 나타나는 세대별 차이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노년세대를 한국전쟁 세대,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등 세 개의 코호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2014년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세대별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는 단체 종류는 다소 다르지만 활동 모임 수와 횟수는 대체로 유사하다. 둘째, 측정 변수의 척도 수준(단체활동 모임 여부, 모임의 수 혹은 참여횟수)과 상관없이, 복수 지표로 구성된 사회적 관계 지수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동시에 측정 수준과 상관없이 이들 변수는 건강 만족도나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 같은 변수와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단체활동 참여나 친지 접촉 횟수는 세대별로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속성과 종류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에 기반한 지수 구성은 효과적이지 않다. 고령자인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a)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명진.

E-mail: leemj@korea.ac.kr.

b)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보다 간단한 변수로도 기본적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 노년세대, 사회적 관계 지수, 코호트, 고령화연구패널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of measuring social relationships among the Korean elderly.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problems in the construction of index using multiple indicators. It also deals with its cohort differences among Korean war generation, the postwar generation, and baby-boom generation in that social relationships are closely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hort. For this purpose, the data set of the 5th wave of Korean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n aging are analyz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and frequency of group activities for each generation are somewhat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specific social relationship, but they are generally similar. Second, the numbers of participating groups, the frequencies of group activities and contacts and the patterns of relations to health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show similar results regardless of the types of scale of variables. Third, the number of group activities and friendship contact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refore, in order to measure the social relationships of older gener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their types and attributes. However, the current index composition based on overly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social relationships among the elderly are somewhat problematic. We believe that the basic research goal would be possible with relatively simple variables while reducing the burden of the elderly respondents.

Key words : the Korean elderly, index of social relationship, cohort, Korean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n aging

I. 서론

한국사회는 노년세대가 주력세대가 되는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201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2.8%이며, 2030년 24.5%, 2040년 32.8%, 2060년에는 4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추세의 진행은 전체 인구구성비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는 1990년 20.0명에서 2015년 94.1명으로 4.7배나 증가하였으며, 25년 후인 2040년에는 현재의 3배 이상 증가한 288.6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에 17.5명에서 2060년에는 82.6명이 되어 4배 이상의 증가가 예상된다(통계청 2016).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UN이 규정한 노령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사회는 노령 인구의 비율이 이미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오는 2018년에는 14.3%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1.1%에 달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8년과 8년 만에 각각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까지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예상치는 일본의 24년과 12년, 프랑스의 115년과 41년, 미국의 71년과 15년보다 훨씬 빠른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의료비와 복지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험인구의 12%인 노인들의 진료비가 21조원을 넘어 전체 진료비의 36.8%에 달한다. 평균 치료비가 타 연령대의 3배다. 그 중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로 인한 입원치료비가 9,600억원을 넘었다. 이는 전체 사회에 구조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양한 부담을 주고 있다. 복지제도 유지에 따른 재정문제의 심화, 공적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의 만성적 부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사실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의료정책과 복지정책의 수정이 필요하고,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노년기의 절망과 분노 같은 심리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따른 하나의 방안으로 ‘건강한 노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한’ 노년에 대한 향후 정책적, 기술적 대응을 위해서는 현 노년세대 내에 존재하는 코호트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 노령인구에 진입하는 세대는 기존의 노년세대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근대 이후 한국사회가 경험한 급격한 역사적 변동은 각 세대가 처한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태도에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켰다. 각 세대의 독특한 특성은 다양한 유형의 세대론을 만들어 냈다. 투표행위 같은 정치참여나 사회적 가치, 태도뿐만 아니라 여가나 소비 같은 행위도 세대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이명진 2005; 최섯별·이명진 2011).

지금 노령인구에 진입하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직후 불안감에서 벗어나면서 출생률이 급증한 세대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6.25전쟁 이후 55년생부터 산아 제한이 시작되기 직전인 1961년생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로 보는 의견이 많다. 그 수는 약 9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집단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그 수가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들만의 독특한 제도적 혹은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들은 체계적인 교육제도와 풍부한 경제적 기회를 통해 그들만의 세대적 특성을 만들어 냈다. 삶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욕구를 가지고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즉 이들은 기존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노년층과는 다른 새로운 노년층의 특성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노년인구의 급증이 예상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이나 복지 혹은 건강보험이나 연금문제 같은 거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나 정서적인 문제 같은 미시적인 문제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것은 정서적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거시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물론 최근의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건강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웰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영역인 사회적인 웰빙을 포함한다(WHO 2016).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성은 저하되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 노년세대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의 유입으로 인한 노년층의 내부적 차이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이들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의 현황은 어떠한가? 구체적으로는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고 그 세대별 차이는 어떠한가? 특히 많은 경우에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수의 변수에 기반한 지수 구성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급격한 인구구조와 사회변화라는 상황을 맞고 있는 한국사회의 대응과 노년 인구의 건강한 삶 추구에 기초적인 정보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관계의 정의와 유형

사회적 관계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하나의 합의된 개념적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자들마다 연구초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즉 사회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맺고 있는 여러 대인관계들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지만, 이에 대한 개념적 설명은 명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는 비슷한 유사개념과 혼동하여 사용되거나 동일시되고 있다. 특히 사회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등은 사회적 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지만 개념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회적 관계는 그 자체로서 사회자본이라는 도구적, 기능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떠오르기 전부터 학문적으로 연구되어 왔다(이창순 2005). 이 경우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맺고 있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대인 관계를 총칭하며, 그 자체로서 긍정적인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이민아 2013). 그러나 국내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논문들은 기능적 측면에 대한 주제에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영란·박경순 2013).

사회적 관계망이 분석적으로 사용될 때는 거시적 의미에서 한 인구집단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대를 의미하며, 미시적 의미에서는 개인이 접촉하고 있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관계들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맺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들은 사회적 관계망을 이루는 구성요소이며, 미시적 의미에서 사회적 관계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적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다(Ell 1984). 때문에 사회적 관계란 개인을 둘러싼 가족은 물론 친구, 친척, 이웃 그리고 다양한 단체활동까지도 포함하는 매우 다차원적 개념으로 사용된다(Wenger 1991; 박경숙 2000; 이소정 외 2008).

개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모든 관계들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관계를 분석할 때는 그 유형을 구분하여 측정하되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Mcperson et al.(2006)은 개인이 관계 맺고 있는 타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친족에 속하는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기타 가족 구성원과 비친족에 속하는 직장동료, 자발적 결사체 구성원, 이웃, 친구, 조언자,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국내연구들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관계를 주로 가족관계, 친척관계와 이웃관계, 친구관계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 연구는 대부분 가족관계에 집중되어 있다(김영범·박준식 2004; 문정화·김미혜 2015). 이는 주로 가족구성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거 한국사회의 친족 위주 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는 그 규모가 일부 축소될 수는 있으나, 전적으로 가족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다양한 수준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Cantor(1979)에 의하면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는 광범위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배우자,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형제자매 등의 친족으로 구성된 일차적 비공식적 관계, 친구나 이웃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이차적 비공식적 관계, 비교적 규모가 크고 공식적인 단체구성원과 동료들로 이루어진 공식적 관계들을 포함하고 있다.

2. 한국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노년층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는 이전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Wenger et al. 1995; Rowe & Kahn 1997; Litwin 2001; 정순돌 외 2010).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은 한국사회에서도 유효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노년세대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이 확인되었으며(김영범·박준식 2004; 이호성 2005), 친족 외의 대인관계 또한 그 수와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이기홍 2005).

그러나 노인의 사회적 관계 실태에 중점을 둔 연구들은 대부분 그들의 관계망이 제한적이라는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친족, 친구, 이웃, 단체 구성원을 포함한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 크기는 청·장년층의 2/3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노인층의 1/4은 홀로 고립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 구성은 청·장년층에 비해 친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친구·이웃으로 대표되는 비친족 관계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정경희 1995). 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고립형, 동거 자녀와 주로 교류하는 전통적 가족중심형, 비동거 자녀와 자주 교류하는 수정 가족중심형, 비친족과 자주 교류하는 지역사회 중심형, 자녀와 지역사회 모두와 활발한 교류를 나누는 다층형으로 유형화한 결과, 한국노인의 대부분은 가족중심형이며 지역사회중심형과 다층형 비율은 낮아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매우 약하게 나타났다(박경숙 2000).

공식적 관계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참여에 있어서도 한국노인들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단체활동은 주로 친목활동, 종교 활동과 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동창회나 향우회에 편향되어 있는 제한적인 사회참여활동 양상을 보였다(정경희 외 2014; 허준수 2014). 또한 노인들은 사회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모임과 같은 관계적 활동보다는 소일거리나 교육과 같은 생산적 활동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정병은·이기홍 2009). 이는 한국노인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대부분 적극적인 공동체적 관계를 지향하기보다

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노년세대 사회적 관계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나타났다. 친족과 친구, 이웃을 포함한 노년세대의 비공식적 관계망의 크기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특히 친족관계망이 감소하는 연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이윤경 외 2010). 공식적 관계를 나타내는 모임 및 단체활동의 경우에도 노년세대의 참여율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0% 이상의 노인은 기존의 낮은 참여율을 유지하는데 그쳤으며, 약 25% 정도는 사회참여 수준이 기존보다 감소하는 연령효과를 보여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공식적인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경인 2014).

최근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는 2010년부터 본격화 되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접어들게 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과 그에 따른 적절한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고령화와 저출산 경향이 더욱 빠른 속도로 심화됨에 따라 은퇴 후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과 일자리가 보다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갖게 되었다.

베이비붐 세대를 다룬 연구들은 개인적 특성, 사회적 관계, 건강, 생활수준,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장은주 2016). 그 중에서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강유진 2005; 이정화 2009; 김주성·최수일 2010).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기능적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역할을 조명하는 연구와 구조적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 실태를 살펴보고 유형화하는 연구로 나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기능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가족·이웃·친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수, 접촉빈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강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망이 양호할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민·김동현 2015). 사회적 관계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비교적 가까운 비공식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모임이나 단체활동 속에서 형성되는 공식적 관계

에서도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활동을 유형화한 결과, 소득활동에만 집중하거나 혼자 혹은 가정 내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유형에 비해 시민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단체활동을 하는 유형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았다(김윤정·강현정 2013).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활동 참여와 가족 내의 원만한 관계 외에 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측면을 살핀 연구들은 주로 관계 만족도, 접촉빈도, 그리고 지지 형태를 통하여 주변 관계망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주로 배우자, 부모, 자녀라는 일차적 비공식적 관계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체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이는 남성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문정화·김미혜 2015).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2/3 이상은 부모가 생존해 있고, 대부분 그들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체로 관계 만족도가 높고, 부모와의 관계에 비해 접촉빈도와 경제적 지원의 수준이 더 높았다(정경희 외 2010).

공식적 관계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단체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다루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 가량이 노후의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정경희 외 2010), 이들의 친목 단체활동 참여율은 젊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와 비교하였을 때도 높게 나타났다(여관현·박민진 2014).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높은 자원봉사활동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종인 2012; 김종인·김윤정 2013). 특히 이전 노년세대와 비교했을 때 베이비붐 세대의 참여율과 참여의사 비율은 각각 2배, 1.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연령효과보다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이현기 2013).

그러나 지금까지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분석범위가 제한적이었던 한계점이 있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배우자와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에 국한되었고, 공식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사회참여나 단체활동에 있어서는 단순히 몇 가지 유형에 제한적으로 집중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친구, 친족, 이웃과의 다양한 유형의 사회활동 및 단체활동 참여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연구들은

상이한 생애사를 경험한 노년을 65세 이상이라는 하나의 연령 범주로 묶음으로서 그 내부적 특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다. 특히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노년층 진입을 고려할 때,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는 친족 외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유입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년세대의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3. 사회적 관계와 삶의 질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를 유형화하거나 측정하는 방법은 학자들마다의 정의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증적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가 그들의 삶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으로 대표되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Graney 1975; House et al. 1988; 임소영 외 2013).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퇴직으로 인하여 노인의 생활환경이 감소된 경우에도 여전히 사회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개인의 삶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류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단순히 개인의 내부적인 상태에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정서적 안녕과 자신의 생활에 대한 평가는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 공동체 참여 등 더 큰 사회적 삶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배나래·박충선 2009).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그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한형수 2004; 주경희 2011).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와 건강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일부 상반된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는 지지가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오거나 스트레스를 줄여 개인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House

et al. 1988; Cohen 2004), 개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고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박경숙 2000). 이처럼 사회적 관계와 건강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두 변수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김숙영 외 2010).

Ⅲ. 자료와 측정

1. 연구자료

여기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 세대의 사회적 관계의 교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4년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이하 고령화 패널)를 사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중·고령자 대상 패널조사로, 2006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2년 간격으로 짝수 연도마다 기본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제5차 기본조사의 조사는 2006년 실시된 1차 기본조사의 원 표본 10,254명 중 사망자 823명을 제외한 9,4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생존응답자 수는 총 7,029명으로 표본유지율은 79.2%이다. 1차 기본조사 대상 구축 후 사망자를 제외한 패널 중 추적실패는 9.4%, 거절자는 8.8%이며, 그 외는 해외이민, 입원, 부재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조사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해당 조사시점의 표본이 모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분석에 횡단가중값을 적용하였다.

고령화 패널조사는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 외에도 노동시장 참여, 은퇴, 소득 및 자산, 저축, 주거 같은 경제적인 환경과 인지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신체적, 정서적 건강과 관련한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건강 유지를 위한 활동이나 비용, 가족관계, 사회적 활동 등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신현구 외 2005). 또한 이처럼 노년층에 대한 폭넓은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65세 이상의 노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1차 패널조사 당시 1961년 출생까지의 중·장년층을

함께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노년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기존 노년 세대를 하나의 데이터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적합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와 이를 이전의 노년세대와 비교하기 위하여 각 자료에서 1961년도 이전 출생자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표 1>은 각 세대 구분과 주요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선행연구의 세대 구분에 따라 1955년~1961년 출생자를 ‘베이비붐 세대’로 규정하고, 1954년 이전 출생의 노년세대 중 1941년을 기점으로 이전 출생은 ‘한국전쟁 세대’, 1942년부터 1954년까지를 ‘전후 세대’로 분류하였다(이명진 2005). 이에 따라 「2014년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 또한 1961년 이전 출생인구($n=7,029$)를 베이비붐 세대($n=1,698$)와 전후 세대($n=2,848$), 그리고 한국전쟁 세대($n=2,483$)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1> 세대 구분과 주요 특징

세대구분	출생년도	2017년 연령(만)	고등학교 졸업연도	주요 정치적 사건
한국전쟁 세대	1941 년 이전	76 세 이상	1960 년 이전	한국전쟁
전후 세대	1942-1954	63-75 세	1961- 1971	4.19 5.16
베이비붐 세대	1955-1961	56-62 세	1972- 1978	유신 10.26

* 정치, 사회, 문화 변화는 고등학교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함(이명진 2005).

2. 변수 측정

사회적 교류 정도는 고령화 패널의 친구, 친척, 이웃과의 접촉빈도와 단체활동 참여빈도를 측정값으로 사용하였다. 친구, 친척, 이웃과의 접촉빈도는 “가까이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친척 또는 이웃사촌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이분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거의 매일(1주일에 4회 이상)”,

“1주일에 한 번 정도”, “1주일에 두세 번 정도” “1달에 한 번 정도”, “1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1년에 서너 번 정도(3~4개월에 1번)”, “1년에 대여섯 번 정도(2개월에 한 번 정도)”, “1년에 거의 볼 수 없음”,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단체활동 참여는 “아래 단체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종교모임”, “친목모임(계모임, 노인정 등), “여가/문화/스포츠 관련단체(노인대학 등)”,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기타”, “없음” 등의 항목으로 응답되었다. 총 7개의 유형별 활동 참여는 중복 응답으로 측정되어 한 가지 주된 활동 유형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적인 단체활동 참여 수준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유형별 모임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 한해 “그 활동에는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거의 매일(1주일에 4회 이상)”, “1주일에 두세 번 정도”, “1달에 한 번 정도”, “1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1년에 서너 번 정도(3~4개월에 한 번)”, “1년에 대여섯 번 정도(2개월에 한 번 정도)”, “1년에 거의 활동하지 않음”, “거의 활동하지 않음”의 항목으로 참여빈도가 측정되었다.

친구, 친척, 이웃과의 접촉빈도와 모임에의 참여빈도는 일종의 서열변수로 측정되었지만 자료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등간척도로 변환하였다. 이때 기준을 1달로 삼아 접촉빈도와 참여빈도를 계산하였다. 1달은 4주로 삼고, 두세 번 혹은 서너 번 같이 다소 모호한 표현의 경우 낮은 쪽으로 통일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의 본 적이 없거나 참여한 적이 없다는 교류빈도나 참여빈도가 ‘없다’라는 단정적인 표현과 구분하고 최소한 빈도를 유지하기 위해 0.05를 횡수로 부여하였다.

또한 사회적 관계 측정값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응답자의 건강상태와 행복감 변수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건강상태는 본인이 느끼는 건강 만족감에 대한 것으로, “동년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응답자 성명]님께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0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등으로 측정되었다. 행복감은 “동년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응답자 성명]의 전반

적인 삶의 질(행복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0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의 동일한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IV.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고령화 패널 응답자 7,029명의 세대별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¹⁾ 무엇보다도 모든 세대 모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상반되게 베이비붐 세대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가장 낮고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아, 연령이 낮아질수록 교육수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간 가구소득은 한국전쟁 세대에서는 1,000만원 미만, 전후 세대는 1,000~3,000만원 미만, 베이비붐 세대는 3,000~5,0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전쟁 세대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며,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 전후 세대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비율 차이가 한국전쟁 세대만큼 크지는 않으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취업자가 더 많고, 취업자의 비율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당시 혼인상태는 모든 세대의 경우 혼인중이 가장 높았으나, 한국전쟁 세대의 경우 사별 또는 실종상태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전쟁 세대의 연령에 기인한 특성으로 보인다.

1)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라 전체 자료는 모집단과 유사한 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 세대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한국전쟁 세대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N=7,029)	남성	998	40.19	1,274	44.73	715	42.11
	여성	1,485	59.81	1,574	55.27	983	57.89
교육수준 (N=7,029)	초등학교 졸업 이하	1,796	72.33	1,164	40.87	230	13.55
	중학교 졸업	247	9.95	627	22.02	312	18.37
	고등학교 졸업	305	12.28	779	27.35	859	50.59
	대학교 졸업 이상	135	5.44	278	9.76	297	17.49
연간 가구소득 (N=6,949)	1,000 만원 미만	1,177	48.54	545	19.26	75	4.42
	1,000-3,000 만원 미만	806	33.24	1,279	45.21	460	27.14
	3,000-5,000 만원 미만	275	11.34	665	23.51	618	36.46
	5,000 만원 이상	167	0.89	340	12.02	542	31.98
근로활동 (N=7,028)	취업자	369	14.86	1,162	40.80	1,124	66.23
	실업자	4	0.16	17	0.60	25	1.47
	비경제활동인구	2,110	84.98	1,669	58.60	548	32.29
혼인상태 (N=7,029)	혼인 중	1,404	56.54	2,378	83.50	1,510	88.93
	별거 또는 이혼	34	1.37	82	2.88	80	4.71
	사별 또는 실종	1,039	41.84	377	13.24	75	4.42
	결혼한 적 없음	6	0.24	11	0.39	33	1.94

2. 사회적 관계 측정 지표

〈표 3〉은 각 유형별 단체활동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모임 참여율은 큰 차이가 없었고, 여가/문화/스포츠 활동,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활동, 기타는 전후 세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친목모임의 경우 세대별 참여빈도 평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져,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활발한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점수가 이전 노년층들

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나 이들이 매우 활발한 연고 기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문화/스포츠 활동은 전후 세대가 가장 높고 한국전쟁 세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 세대별 단체활동 참여율

활동유형	세대구분	전체 참여율(%)
종교모임	한국전쟁 세대	16.6
	전후 세대	18.4
	베이비붐 세대	17.4
친목모임	한국전쟁 세대	47.9
	전후 세대	65.7
	베이비붐 세대	69.0
여가/문화/스포츠	한국전쟁 세대	3.6
	전후 세대	6.4
	베이비붐 세대	6.1
동창회/향우회/종친회	한국전쟁 세대	6.0
	전후 세대	18.7
	베이비붐 세대	27.0
자원봉사	한국전쟁 세대	0.3
	전후 세대	0.7
	베이비붐 세대	0.6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한국전쟁 세대	0.1
	전후 세대	0.3
	베이비붐 세대	0.1
기타	한국전쟁 세대	1.3
	전후 세대	1.6
	베이비붐 세대	0.9

주: * $p < .05$; ** $p < .01$

주목해야 하는 점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관련 현황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참여의향은 기존세대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김종인 2012; 김종인·김윤정 2013; 이현기 2013). 그러나 실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참여율은 매우 낮다. 한편 친목모임과 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모임인 동창회/향우회/종친회 활동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참여율이 두드러진다. 친목모임과 동창회/향우회/종친회 활동은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는 두 이전 노년층에 비해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활동 참여율 자체로 전체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 지표 혹은 변수로 하나의 지수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모임참여 여부에 관한 복수의 변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비록 이 변수가 참여 여부를 반영한 이분(dichotomy)척도로 이루어진 변수이지만, 이분척도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할 수 있다(Percy 1976).

두 번째 방법은 모임에의 참여빈도를 등간척도로 전환하여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보다 정밀한 수준 척도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고령화 패널 자료를 사용할 경우, 이 두 가지 방법은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는 데 제한적이다. 무엇보다도 종교모임이나 친목모임을 제외하고 다른 종류의 단체활동 참여율을 전체 노년세대에 적용하기 어렵다. 나머지 유형의 단체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외라면 베이비붐 세대이다. 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세 번째 방법은 여러 종류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되, 종류에 상관없이 횡수를 반영하여 복합 지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유형별 참여 모임에 따른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표 4>와 <표 5>는 이분척도를 사용할 경우와 등간척도를 사용할 경우로 나누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등간척도의 변환 기준은 한 달로 하였고, 정확한 횡수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는 빈도가 낮은 쪽을 선택하여 변환하였다.

회전된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각 요인의 순서가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고유값의 정도나 설명된 분산, 개별 요인과 관련이 큰 지표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요인분석의 결과가 유사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현재 노인세대의 사회적 관계의 현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나, 요인분석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미진한 면이 있다.²⁾ 둘째, 결국 적어도 이 자료에서는 고령화 패널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상세한 모임참여횟수는 의미가 있는 정보를 주고 있지 못하다. 어쩌면 개별 모임에 구체적인 횟수를 답해야 하는 상황은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응답자가 지나치게 많고 상세한 질문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비표본오차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현재 고령화 패널조사의 설문 분량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표 4> 참여 모임에 관한 요인분석(이분척도)

	요인			
	1	2	3	4
여가/문화/스포츠 단체(노인대학 등)	.719			
동창회/향우회/종친회	.615			
자원봉사	.500			-.482
종교모임		.765		
친목모임(계모임, 노인정 등)		-.721		
기타			.955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840
고유값	1.17	1.16	1.02	1.02
설명된 분산(%)	16.7	16.6	14.6	14.5

주: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임. 회전 방법은 베리맥스를 사용하였으며, 요인부하값이 .4를 넘는 경우만 제시함.

2) 결국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요인분석 결과에서처럼 개별 요인에 대해 이론적인 명칭을 부여하지 못하고, 단순히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표 5> 참여 모임에 관한 요인 분석(등간척도)

	요인			
	1	2	3	4
동창회/향우회/중친회	.676			
기타	.655			
종교모임		.729		
친목모임(계모임, 노인정 등)		-.535	.410	
여가/문화/스포츠 단체(노인대학 등)			.661	
자원봉사		.416	.524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963
고유값	1.08	1.05	1.04	1.00
설명된 분산(%)	15.4	15.0	14.9	14.3

주: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임. 회전 방법은 베리맥스를 사용하였으며, 요인부하값이 .4를 넘는 경우만 제시함.

<표 6> 세대별 참여 모임 수와 친지 접촉빈도(평균값)

세대구분	①				②	③	④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모임 수	종교/친목 모임 수	친지 접촉빈도
한국전쟁 세대	-.24	.20	.06	-.06	.76	.64	7.50
전후 세대	.03	-.02	.01	.01	1.12	.84	6.45
베이비붐 세대	.12	-.11	-.05	-.02	1.21	.86	5.49
F-값	141455.2**	98588.6**	6902.9**	12806.1**	394005.6**	173299.3**	81698.6**

주: ** $p < .01$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 측정값과 관련 변수를 비교하여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6>은 이분척도를 사용한 요인점수와 모임 수, 종교/친목 모임 수, 친지 접촉빈도의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참여

모임 여부에 기반한 각 요인점수 값이나 참여 모임 수 그리고 종교/친목 모임 수 모든 변수에서 동일한 유형이 나타났다. 즉 베이비붐 세대의 점수가 높고 한국전쟁 세대가 낮았다. 세 집단에 대한 쉼페 사후 분석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모임 수, 종교/친목 모임 수, 친지 접촉빈도 모두 각 세대가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사회적 관계 측정값과 건강 만족감, 삶에 대한 만족감 상관관계

	세대구분	건강 만족감	삶에 대한 만족감
요인 1	한국전쟁 세대	.101**	.115**
	전후 세대	.158**	.157**
	베이비붐 세대	.077**	.100**
요인 2	한국전쟁 세대	-.094**	-.077**
	전후 세대	-.074**	-.041**
	베이비붐 세대	-.095**	-.060**
요인 3	한국전쟁 세대	.011**	.031**
	전후 세대	.026**	.049**
	베이비붐 세대	.028**	.048**
요인 4	한국전쟁 세대	.035**	.022**
	전후 세대	.005**	-.009**
	베이비붐 세대	.040**	.026**
모임 수	한국전쟁 세대	.233**	.197**
	전후 세대	.250**	.257**
	베이비붐 세대	.176**	.214**
종교/친목 모임 수	한국전쟁 세대	.190**	.143**
	전후 세대	.167**	.175**
	베이비붐 세대	.113**	.149**
친지 접촉빈도	한국전쟁 세대	.111**	.136**
	전후 세대	.020**	.111**
	베이비붐 세대	.067**	.139**

주: * $p < .05$; ** $p < .01$

사회적 관계 측정값을 평가하는 다른 방법은 관련된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종의 외적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가 갖는 의미를 고려했을 때 관련 있는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깊은 영역 중 하나로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고령화 패널은 삶의 질과 관련하여 건강 만족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 측정값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V. 요약과 토의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노년 인구의 문제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중요한 구성 요소인 사회적 관계 측정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노년인구에게 사회적 관계는 육체적 요소나 정신적 요소만큼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유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건강한 노인은 거시적으로 복지나 의료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도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는 현재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고려할 경우 변화가 예상된다. 이들은 전쟁 직후 불안감에서 벗어나면서 출생률이 급증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수가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특한 사회현상을 만들어냈다. 어떻게 본다면 베이비붐 세대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성은 저하되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을 추구하는 데 적절한 세대이다. 이 세대는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동시에 정치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세대이다. 그러나 동시에 삶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세대별 차이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의 현황을 세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사

회적 관계가 삶의 질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를 각 세대별 단체활동 모임의 수와 횟수로 살펴보면 대체로 유사한 유형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종교모임 참여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가/문화/스포츠 활동,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활동은 전후 세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친목모임과 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모임인 동창회/향우회/중친회 활동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코호트적인 특징일 수 있으나 이들의 연령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대와 현재에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대 사이에서 이러한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만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참여 의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체활동 모임의 수와 참여횟수는 척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개별 모임의 참여 여부를 측정하는 값과 모임 참여횟수를 측정하는 값이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참여 모임 수나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종교 모임이나 친목 모임의 참여 여부만을 반영한 측정값과도 유사하다.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깊은 건강 만족도나 삶에 대한 만족도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유형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당분간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보다는 다소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기본적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단체활동 참여와 관련한 측정값의 세대별 유형은 친지 접촉횟수와는 다소 다르다. 이는 노년의 사회적 관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정 수준의 이차적인 관계와의 교류 또한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속성과 종류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지나치게 상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과감하게 사회적 관계의 종류를 간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조사나 분석의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현재 노인세대의 사회적 관계는 다소 사적 신뢰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으로 이러한 특징이 다소 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교육과 경험을 갖춘 최초의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전쟁 같은 역사적 격변을 겪지 않고, 체계적인 고등 교육을 받았다. 또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비해 경제적 기회도 많이 누릴 수 있었다.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봉사 같이 공적 관계와 관련이 많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도 강하다. 그러나 기존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는 사적 관계나 개인적인 이익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응답 부담을 줄이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유진. 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 김숙영·최경원·오희영. 2010. “도시 취약계층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건강수준과의 관계.” 《재활간호학회지》 13(1): 53-61.
- 김영범·박준식. 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한국노년학》 24: 169-185.
- 김윤정·강현정. 2013.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3): 1090-1099.
- 김종인. 2012.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욕구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인·김윤정. 201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2): 655-664.

- 김주성·최수일. 2010.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복복지학》 15(3): 97-119.
- 김형민·김동현. 2015.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4): 89-100.
- 문정화·김미혜. 2015. “베이비부머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31(2): 105-132.
- 박경숙. 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한국사회학》 34(가을): 621-647.
- 박영란·박경순. 2013.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노인복지연구》 60: 323-352.
- 배나래·박충선. 2009.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2): 761-779.
- 신현구·부가청·반정호. 2005. “고령자패널조사 소개.” 《노동리뷰》 4: 58-69.
- 여관현·박민진. 2014.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의 사회특성에 대응한 서울시 지역정책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6(2): 31-55.
- 이기홍. 2005. “한국 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한국노년학》 25: 1-21.
- 이명진. 2005. 《한국2030 신세대의 의식과 사회정체성》. 삼성경제연구소.
- 이민아. 2013.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 《한국사회학》 47(4): 171-200.
- 이소정·정경희·손병돈·이미숙·홍백의·이은진. 2008.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정경희·염지혜·오영희·유혜영·이은진. 2010.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화. 2009. “광주·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 준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75-289.
- 이창순. 2005. “사회 연결망과 사회적 자본에서의 성차와 성불평등.” 《사회과학연구》 31(1): 157-173.
- 이현기. 2013.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참여 및 참여의사의 영향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7: 227-256.
- 이호성. 2005. “도시노인의 사회적 유대와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5: 123-138.
- 임소영·강민아·조성일. 2013. “한국 노인의 사회관계망 유형과 건강상태의 관계: 남녀집단별 분석.” 《노인복지연구》 59: 281-308.

- 장은주. 2016.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 동향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희. 1995. “노인들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 52-68.
- 정경희·오영희·강은나·김재호·선우덕·오미애·박보미.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이소정·이윤경·김수봉·선우덕·오영희·이은진. 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병은·이기홍. 2009.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 953-970.
- 정순돌·문진영·김성원. 2010. “고령은퇴자의 사회적 관계망과 은퇴만족도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30: 1145-1161.
- 주경희. 2011.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영역과 수준에 따른 삶의 질 비교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9: 231-264.
- 최경인. 2014. “상지대학교 노년기 사회참여의 변화궤적: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 및 예측요인.”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셋별·이명진. 2011. “한국인의 영화 취향 구조: 영화취향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 사회의 상징적 배제.” 《여가학 연구》 9(1): 1-26.
- 통계청. 2016. “2010~2060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한형수. 2004. “한국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9: 113-142.
- 허준수. 2014.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4: 235-263.
- Cantor, M.H. 1979. “Neighbors and Friends an Overlooked Resource in the Informal Support System.” *Research on Aging* 1(4): 434-463.
- Cohen, S. 2004.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59(8): 676.
- Ell, K. 1984.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A Review.” *Social Service Review* 58(1): 133-149.
- Graney, M.J. 1975. “Happines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30(6): 701-706.

- House, J.S., K.R. Landis and D. Umberson.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4865): 540-545.
- Litwin, H. 2001. "Social Network Type and Morale in Old Age." *The Gerontologist* 41(4): 516-524.
- McPherson, M., L. Smith-Lovin, and M.E. Brashears. 2006. "Social Isolation in America: Changes in Core Discussion Networks over Two Deca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3): 353-375.
- Percy, L. 1976. "An Argument in Support of Ordinary Factor Analysis of Dichotomous Variabl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 143-148.
- Rowe, J.W. and R.L. Kahn.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Wenger, G.C. 1991. "A Network Typology: From Theory to Practice." *Journal of Aging Studies* 5(2): 147-162.
- Wenger, G.C., R. Davies, and S. Shahtahmasebi. 1995. "Morale in Old Age: Refining the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0(11): 933-943.
- WHO. 2016. "WHO Definition of Health."
<http://www.who.int/about/definition/en/print.html>.

<접수 2017/02/16, 수정 2017/02/23, 게재확정 2017/02/23>